

효率的 事業遂行과 核心技术의 定着에 역점

◇韓國電力技術(株)◇

국내 최초로 우리 기술에 의해 원전 설계, 기자재 제작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났다. 기존 국내발전소가 대부분 해외일괄발주 또는 해외분할발주에 의해서 건설된 것에 비해 이번 靈光原子力發電所 3,4號機事業은 비록 핵심분야 일부를 외국기술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정이 순수 국내기술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비단 원자력발전산업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관련기관과 韓國電力技術(株) 등 각 분야별 참여업체들이 발전소 건설 국산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과 준비를 기울여 온 결과라 할 것이다.

원전설계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韓國電力技術(株)은 靈光原子力 3,4號機 綜合設計役務의 주계약자로서 작년에는 외국 하도급업체의 기술지원과 공동업무 수행으로 개념설계와 기본설계역무를 대부분 완료하여 계획된 엔지니어링공정을 달성하고 금년도 기초굴착으로 시작되는 건설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회사와의 공동수행과정에서 기본설계 등 핵심기술의 경험을 습득하고, 각종 교육훈련의 실시, 전산프로그램 및 기술자료의 확보 등 관련 기술도입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설계기술 향상에 진일보하게 되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韓國電力技術(株)은 전년도에 이룬 성과를 기반으로 원전설계 전문분야를 동사 주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족한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하고, 계속되는 국내발전소 건설에서 증대되는 기술적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내적으로는 건실한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노력하여 주어진 과업 달성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는 1989년도 經營方針을 經營活力提高, 人力效率運用 및 競爭能力培養의 세 가지로 설정하고 이러한 바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형 주계약사업 수행과 원전 설계기술능력 배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들 경영방침의 추진계획을 보면, 먼저 經營活力提高를 위해서는 발전소 설계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여러 전문기술분야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전직원에게 재인식시켜 사명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목표 설정에 전직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직무권한의 대폭적인 하부위양 등으로 책임경영 구현을 추진함으로써 발전소 설계업무 수행에서부터 경영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것이다.

다음, 엔지니어링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력이라는 측면에서 동사는 지금까지 우수인력의 확보와 양성에 주력해 왔으며, 최근 사업량의 증대 및 기술용역사업의 다양화로 人力

의 效率의 運用이 회사 전체 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의 인력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인력활용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직원능력과 직무의 연계를 강화하며 잠재력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와 교육훈련을 집중추진하여 동사 직원 개인의 목적과 회사 전체의 목적이 합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고난도의 용역 수행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전년에 이어 박사급 등 고급인력 유치도 적극 추진하여 취약분야 기술능력을 적기에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競争能力培養은 기술능력과 가격우위를 견지하여 電源開發事業의 효율적인 추진에 일조가 되도록 하는데 그 기본방침을 두고, 고급기술역무 수행체제 구축을 위해 일반화된 기술분야에는 국내 협력업체를 활용하며, 설계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로 원가체계 정립과 생산성 향상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고급기술에 대한 선호추세에 따라 현재 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개량경수로 및 소형원자로 등의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개발에 착수함으로써 기술능력 제고와 향후 원자력 및 에너지분야 신기술 수요에도 점진적로 대비해 나갈 것이다.

韓國電力技術(株)이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술 개발은 靈光原子力 3, 4號機設計 추진공정에 따라 관련 핵심기술의 철저한 습득과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계약사업을 통한 용역사업 경험기술과 기술도입사업에 의한 핵심기술을 소화·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확보하여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기술은 먼저 실제 용역사업에 충분히 활용토록 하며 나아가 후속

발전소 설계업무의 자체적인 수행에 대비할 것이다.

특히, 원전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발전소 안전성 보장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 바, 동사에서는 그동안 기술능력 향상과정에서 이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설계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힘써나갈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原電設計標準化事業은 3단계 사업을 착수하여 영광 3, 4호기 설계요건 검토, 기존 초기경험 조사,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原電産業技術基準制定事業은 작년에 완료된 기초조사내용을 기준으로 화재예방, 기계, 전기, 토목구조 등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적용규정을 제정,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유의 원전기술기준을 정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특히, 靈光原子力 3, 4號機 綜合設計事業은 외국 하도급업체와의 공동사업수행체제에서 금년도는 이미 수립된 업무이전종합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역무를 동사 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며 그중 동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 역무에 대해 외국기술자의 자문활용과 자체인력 교육훈련으로 보완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동사는 금년 원자력발전소 외에 保寧火力 3, 4號機, 瑞山火力 1, 2號 등 대형 주계약설계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이는 동사가 그동안 발전소설계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의 결실이며 또한 애로기술로 여겨지던 기본설계 및 사업종합관리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전직원은 명실공히 발전소설계분야에서 기술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신뢰받는 기술회사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하에 목표달성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